

모리스 창이 신혼여행 때 한 일

경제포커스



이성훈
테크부장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장악하고 있는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과 엔비디아의 CEO(최고경영자) 젠슨 황은 함께 있을 때 마치 부부처럼 같다. 중국계(창은 중국, 황은 대만 태생)에 사업적으로 끈끈한 관계인 걸 감안해도, 황이 모리스 창을 아버지처럼 대하듯 하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 낯선 모습이다. 엔비디아가 TSMC의 고객사인데도 그렇다. 두 사람과 관련된 글들을 찾아 읽다 보면, 그럴 만하게 된 일화들을 알게 된다.

2001년 황은 자신의 캘리포니아 사무실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잠깐 사무실에 들러도 되겠나”는 모리스 창 전화였다. 당시 TSMC는 이미 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 1위 기업이었다. 창업 10년도 안 된 엔비디아는 겨우 게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로 이름을 조금씩 알릴 때였다. 이전에 만난 적은 있지만, 각 별한 사이는 아니었다.

모리스 창은 어느 금요일 오후 다른 직원 없이 혼자 사무실에 나타났다. 모리스 창은 황에게 사업은 잘되는지, 필요한 웨이퍼(반도체 원판)는 몇 장

인지 세세히 묻고 자신의 검은색 노트에 적었다. 황은 긴장한 나머지 자신이 말한 숫자들이 맞는지 확인할 정도였다. 당시 모리스 창이 재혼한 아내와 신혼여행 중이었다는 것을 황은 나중에 알았다. 엔비디아가 없어서 못 판다는 ‘AI 가속기’의 생산을 TSMC에 맡긴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었다. 2007년 10월 모리스 창과 황이 캘리포니아 컴퓨터역사박물관에서 가진 대담에서 밝힌 내용이다.

모리스 창이 공을 들인 초창기 기업은 엔비디아만이 아니다. 켈컴이나

23년 전 TSMC 모리스 창 회장 신생 엔비디아 젠슨 황 직접 방문 “꼼꼼함, 과감함, 신뢰, 큰 포부” TSMC의 위기도 그렇게 넘겼다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도 사업 초기부터 TSMC에 칩 생산을 맡겼다. 이런 기업들이 TSMC의 성장에 밑바탕이 됐다. 2000년대 초 켈컴이 TSMC에 칩만 맡긴 것은 TSMC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경영자로서 모리스 창이 지녔던 위기 속에서 더 빛을 발했다. 그는 2005년 일흔넷의 나이로 TSMC의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TSMC는 전례 없는 타격을 받았다. 고객사들도 하

나들 떠났다. 2009년 모리스 창은 구원 투수로 투입됐다. CEO로 복귀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영난으로 회사를 떠난 연구·개발(R&D) 인력을 불러들이는 것이었다. 이들의 복귀를 요청하며 모리스 창은 직접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20억달러(약 2조 7600억원)였던 TSMC의 투자액도 90억달러(약 12조 4000억원)로 늘었다. 몸집을 줄이던 경쟁사들과는 정반대 결정이었다. 모리스 창은 복귀 후 생산 현장에 상주하시며 하며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질문을 던지고 개선점을 찾았다. 그는 “개별 직원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지 고민했다”고 회상했다.

TSMC가 ‘반도체의 제왕’이 된 것은 그런 위기를 극복한 결과물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때, 선제적 투자로 이 시장을 선점했다. 2016년 아이폰의 주문을 따낼 때도 모리스 창은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 팀 쿡 애플 CEO와 담판을 지었다. TSMC나 모리스 창뿐 아니라 위기 이후 더 단단해진 기업의 사례들을 알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지난해 모리스 창 특집 기사에 위기 극복의 해법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모리스 창은 사업을 할 때 꼼꼼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동료들을 신뢰했다. 그리고 맞다고 생각되면 큰 포부를 갖고 과감하게 움직였다.”

김준의 맛과 섬 [12]

서산 웅도 갯개미 찌개



‘오늘은 갯개미 찌개입니다.’ 특별한 재료를 준비한 날은 주인이 마련한 대로 먹는 것이 좋다. 그래도 함께 한 누구도 불만 없다. 안주인 손맛을 알기 때문이다. 찾는 사람이 적은 섬에서 밥상을 차리는 것이 고마운 것이다. 가까운 읍이나 물고 나와 먹으면 될 일이지만 맛은 감정에 민감하다. 섬 밥상을 찾는 이유다.

갯개미는 간재미를 이르는 충청도 말이다. 간재미가 자라란 큰 홍어가 된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황석어가 자라 조기가 된다고 생각한 것처럼 말이다. 간재미는 홍어와 유전자 정보 가 같다고 밝혀져 분류학상 ‘홍어’로 통일됐다. 다만 흑산홍어는 간재미와 다른 ‘참홍어’로 분류했다. 남해와 서해에서 잡히는 간재미나 갯개

미, 백령도에서 잡히는 팔랭이도 모두 홍어다. 다만 서식지 환경에 따라 채색과 무늬가 다르다.

갯개미는 곁에 점액질이 많고 꼬리에 가시가 있다. 그래서 손질할 때 점액질을 제거하고, 꼬리를 자른다. 찌개로 조리할 때는 쓸개를 뺀 내장을 빼와 함께 넣어 국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여러 마리를 함께 넣어 끓이면 맛이 더욱 좋다. 식당 주인이 ‘갯개미’로 특식을 마련한 이유다. 게다가 여러 마리를 사야 값도 헐하다. 서산이나 태안의 갯개미 찌개는 진도나 목포에서 맛본 간재미 찌개와 다르다. 찌개라는 말에 국물이 자작한 조림을 생각했는데, 국이다.

갯개미는 연승어업과 자망어업 두 가지 방법으로 잡는다. 연승어업은

줄에 낚시를 여러 매달아 잡고, 자망어업은 그물을 길게 펼쳐 그물코에 걸리거나 쫓아들도록 하여 잡는다. 서산이나 태안에서는 그물어업을 많이 한다. 갯개미는 사철 잡히지만, 생물은 겨울과 봄이 좋고, 마른 갯개미를 사용할 때는 지금이 좋다.

진도 간재미탕, 웅도 갯개미 찌개, 백령도 팔랭이탕은 모두 홍어를 쓴다. 다만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것처럼 맛도 다르다. 양념이 과하지 않은 갯개미 찌개가 전라도식 얼큰한 간재미탕보다 밥과 함께 국처럼 먹기 좋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說

민망하고 졸렬한 작금의 정권 풍경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동은 결과도 없었지만 그 모습 자체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대통령실이 회동 후 언론에 배포한 사진부터가 그랬다. 윤 대통령은 사무용으로 보이는 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고 한 대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나란히 맞은편에 앉은 모습은 대통령과 당대표 회동 같지 않았다. 인터넷엔 ‘검사가 변호사와 함께 온 피의자를 조사하는 모습’이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장소와 형식 모두 격에 맞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회동 후 한 대표가 돌아가자 추경호 원내대표를 식사 자리에 따로 부른 것도 부적절했다. 당대표를 무시하고 원내 대표와 분리시키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처음 보는 이상한 풍경이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라며 혀를 차고 있다.

국회에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강해경씨가 나와 ‘명태군씨가 건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는 무사, 김 여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라 장님 어귀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명씨가 꿈자리 사납다고 말해 김 여사가 해의 순방 일정을 바꾼 적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실 확인이 안 된 말들이지만 대

통령 부부가 어떻게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지 민망할 정도다. 윤·한 회동에서 한 대표가 “의원들을 설득해 특검법을 막았지만 상황이 악화할 경우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나오셔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중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위헌 법안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이 있겠느냐는 취지였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어쩔 수 없다’는 대통령 발언의 파장은 계속됐다.

‘어쩔 수 없다’면 특검안이 통과돼도 그만이라는 뜻인데 실제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만찬을 하던 추경호 원내대표를 굳이 부를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원내대표는 의원들 표 단속을 하는 자리다. 최근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최소 4명이 이탈표를 던졌다. 추가 이탈자가 계속 더 나오면 찬성 200표로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될 수 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그 사태의 파장은 특검이 실시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누구보다 윤 대통령이 잘 알 것이다. 국민들도 알고 있다. 그런 처지의 정권 핵심부에서 작금에 벌어진 모습들은 참으로 졸렬하고 민망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李 대표 관철 다가오자 국회서 연속 방탄 토론회

민주당 친명 의원 모임이 22일 국회에서 위증 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검토한다는 토론회를 열었다. 내달 25일 선거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에 앞두고 판사 압박용 ‘방탄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선거 도중 “누명”이라고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가 증인에게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으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증인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고 진술했다.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재판부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가 증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우리 주장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보낼 테니 기억을 되살려 보라” “한번 정치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

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친명 의원 모임은 지난 16일에도 국회에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달 15일엔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전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했다가 기소됐는데 의원들은 “이런 걸 갖고 유력 대선 후보였던 분을 기소하느냐” “정적 죽이기”라고 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회 토론회는 주로 민생이나 정책 토론을 위해 열려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에 국회 토론회까지 이용하고 있다. 극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 대표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다가올수록 이런 행태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의학회 등 ‘의정 협의체’ 참여기로, 갈등 해결 물꼬 트이길

대한의학회와 의대·의정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하고 젊은 의사들의 충성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의료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도 없다”고 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 법정 단체인 의사협회는 불참 입장을 밝히면서도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 요구를 반영하고 의료계 전체 의견을 고려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의료계의 일부나마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와 의료계가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처음이다.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난 지 벌써 8개월이 넘었다. 그 사이 의료 현장에선 시스템이 차려로 망가지면서 상당수 병원 응급실까지 제한 운영에 들어갈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도 특별한 대책 없이 시간만 보냈다. 이런 정부와 의료계의 치킨 게임이 국민과 환자들의 피해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대규모 의대 증원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반

발하며 생긴 것이다. 문제 해결도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아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협상 참여 움직임은 없다. 하지만 이번에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각각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과 교육을 책임지는 곳이다. 두 단체의 역할을 고려하면 의료계는 물론 전공의, 의대생들 의사를 반영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엔 전공의, 의대생들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갈등이 시작된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 모두 무엇이 문제의 핵심이고 상대방 입장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게 됐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비롯해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정상화,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지역 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이번에 드러난 현안들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여러 요구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사태 해결의 열쇠다. 의대 증원이라는 큰 뜻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숫자는 시간을 두고 풀이할 수 있는 문제다. 대일 수시 접수를 마감한 지 오래인데도 의료계가 2025학년도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만 되풀이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을 계기로 오랜 반목과 불화, 갈등이 해결의 길로 들어서길 소망한다.

명분 쌓기 <식전 쇼> 끝났다
newdaily.co.kr 뉴데일리

《우파 대통령 죽이기》 시즌 3 개막 ... 《기회주의 중간파》 배신, 또 시작되나

『와-하고 들고 일어날 구실』 찾지 대총 마무리 시즌 1,2에서 본 <광란> 또 보게 될 것 이명박·박근혜처럼 물러서면, 죽는다

놀랄 일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예상대로> 개졌다. 왜 <예상대로>인가? 그들 사이는 이미 <벌-씨> 개졌기 때문에 그럴 왜 만났나? 대통령으로선 그나마 “안 만나” 할 순 없지 않나?

한동훈 대표는 5가지를 요구했다. ① 대통령실 개편 ②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③ 의혹 사항 소명 ④ 특별감찰관 임명 ⑤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응답한 바는 딱히 없는 듯하다. 놀랄 일 아니다.

<예고편> 끝나고 <본 게임> 시작

<탄핵 세력>은 이미 <김건희 죽이기=윤석열 죽이기>를 들어킬 수 없는 기정사실로 정해놓았다. <와-하고 들고 일어날 구실>만 잡으면 되었다. 그런데 구실이 드디어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최후통첩>에 항복하지 않

로 한 것. 이 결과는 피차 예정된 것, 아니었나?

한동훈이 대통령을 만나 약속하고, 거닐고, 마주 앉아 답한다는 뜻하고, 이라고 저러고 한 것은 다 <쇼>에 불과했다. “절차를 다 밟았는데 대통령이 끝내 노(no)라 했으니, 우리(탄핵 연합)로선 불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란 명분 쌓기였다.

이젠 <본 게임>이다. 적나라한 <힘의 투쟁>이다. ★데모 ★집회 ★연설 ★노래 ★연예인 문화제 ★야간 선동 ★촛불 행진 ★유모차 부대 ★어린이-중고생 동원 ★대형 그림판 ★허수아비 목매달기 ★가짜 뉴스 ★식발...

첨연 <직업적 권>들과 그들의 <단골손님>들이 악약거린다. 여기다 <언론>이 ★기름을 붓고 ★부풀리고 ★뽕튀기고 ★소설쓰고 ★엽기(黨囂)적으로 ★음란하게 각색한다.

<보통 사람>들까지 구경 나갔다가 제풀에 흥분해버린다. “타도하라, 타도하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천안문 광장의 <홍위병 문화혁명>이 따로 없다.

문제는 <기회주의 중간파>의 배신

이제 자유·보수·우파 국민이 답할 차례다. 또 그렇게 갈

작정인가? <광우병 난동> <촛불 광란>으로도 부족해, 세 번째로 <우파 대통령 몰아내기>인가?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죽여놓은 건 <좌익>이 아니었다. <어중간 기회주의자들+우파 안의 탄핵 분자들>이었다. <좌익>이야, 그게 그들의 직업이다. 문제는 <중간파>와 <일부 우파>가 그쪽에 가세하는 <배신>, 이게 우파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내쫓았다.

세 번째 또 그러면, 그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자체가 폐허·속대밭이 될 것이다. 그걸 정·바란다면, <불구경>을 또들 즐기시라. 쫓막 망하는 것까진 바라지 않는다. 이번만은 부디 <막장>까진 가지들 마시라.

尹 예배 그러는 것 아님

윤석열 대통령이 예배서가 아니다. 그와 언제 그렇게 만나 인연 맺고 사귀었다고 그럴 것인가. 그럴 이유 없다. 다만 공적(公的)으로 그가 실각하면 자유 진영 전체의 발달에, <진도 10의 강진>이 터질 것을 걱정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한마디. 제2 부속실은 만듭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처럼 <청와대 뒷산> 아닌 한강 건너로

가지 마시! 박근혜 대통령처럼 <사과하고 후회>하지 마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시!

뭘 잘못했다고? <부동산>을 해 집쳤소, <북한에 뇌물>을 바쳤소, <김정은에게 USB>를 줬소? <관봉권>을 갖다 줬소?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

류근일 칼럼: 좌파의 정권타도 기도, 법으로 응징해야

이명박당, 드디어 강의로... 결국 <제2 촛불광란> 확정인가

류근일 칼럼: 한국 보수에 묻는다

<명태군+김건희 우회(暗通)>에 송жат하면, <마필+중앙>이다

이명승 칼럼: 노벨상, 한반도의 <명과 암> 정조준

주목하라, <문화상> 아니라 <경제야상>... <상호> 대신 <상동>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10월 22일 게재 되었습니다.